

접촉점 a point of contact

요즘 들어 내가 살고 있는 밴쿠버 지역이 오레곤 포틀랜드를 닮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며 먹을 곳을 많이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먹는장사가 낯은 모양이다. 그런데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술파는 곳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저녁에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 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술과 와인을 마시러가는 이유는 술 자체를 좋아해서 보다는 친구든 아니면 새로운 만남이든 아마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술집이 과연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접촉점일까? 생각해 본다.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오지는 않을까? 얼마 전에도 미국 남부 지방에서 한 여성이 술집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일도 있었다. 이제는 함부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서도 안 되는가 보다. 세상이 그렇게 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가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르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며 교회를 다니다 보니 친구들이 많아졌다. 물론 쉽지 않은 관계가 생기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과 비교할 때에 큰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기는 정말 힘든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접촉점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문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교회로 만들어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조차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세상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교회로 만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지하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전도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다. 순종은 해야 하겠고 우리가 사는 상황은 그럴지 않고 결론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접촉점이 되는 것이다. 술집에 가야 접촉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관심이 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늘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힘이 되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 사람도 상황이 좋지는 않은 듯하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의 인생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접촉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장 23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있다. 2020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교회 성도 한 사람의 옷자락을 열 명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달라고 하는 바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